배우 청룽 "내 건강 걱정 마세요"

홍콩의 액션 배우이자 할리우드 스타인 청룽(성룡)이 70세 생일을 맞아 그의 건강을 걱정하는 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 인터넷에 올라온 백발의 청룽 사진. 사진=뉴스1

7일 청룽은 70세 생일을 맞아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얼마 전, 많은 친구가 인터넷에 있는 일부 나의 최근 사진을 봤고 모두 내 건강에 대해 걱정했다. 나는 이 기회를 빌려 모두에게 알리고 싶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면서 "그것은 단지 내 최신작 영화 등장인물의 모습일 뿐이다. 그 캐릭터를 위해 나는 흰 머리와 흰 수염을 하고 늙어 보일 필요가 있었다" 고 설명했다.

청룽은 또 자신이 벌써 70세가 됐다는 데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벌써 70세가 됐다고? 충격에서 회복된 뒤 두 번째로 떠오른 생각은 언젠가 내 큰형님 홍진바오(홍금보)가 한 말" 이라면서 "나이들 수 있는 것은 운이 좋은 것이다" 라고 썼다.

무술 영화 출연 초창기 많은 부상에 시달렸던 청룽은 "특히 우리 스턴트맨들에게는, 늙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우리는 모른다. 나는 62년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해왔고 나는 여전히 오늘도 활영하고 있어 운이 좋기 때문에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고 덧붙였다.

류준열, 캐디 변신 … 그린워싱 논란

배우 류준열(37)이 '그린워싱'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논란에도 메이저 골프대회 캐디로 등장했다. 환경단체 홍보대사가 '골프광' 인 점은 이중적이라며 비판이 쏟아졌다.

▲ 류준열(왼쪽)이 파3콘테스트에서 김주형의 백을 메고 환한 미소를 지어보이고 있다. 사진=m.news.nate.com

류준열은 10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내셔널골프클럽에서 열린 파3 콘테스트에 등장했다. 파3 콘테스트는 마스터스 개막 전 열리는 이벤트다.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가족, 연인, 친구 등에게 캐디를 맡기고 즐긴다. 이 이벤트에 국내 연예인이 캐디로 등장한 것은 이승철(2011), 배용준(2015) 이후 세 번째다.

이날 류준열은 김주형 골프백을 메고, 흰색 점프수트에 초록색 모자를 쓰고 등장했다. 캐디가 선수를 대신해 티샷을 하는 이벤트도 펼쳐졌는데, 류준열은 9번 홀에서 '원온' (샷 한 번 만에 그린 위에 공을 올리는 일)에 성공했다. 두 번의 퍼트로 파를 잡은 뒤 세리머니를 했다.

류준열은 2016년부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를 후원했다. 지난해 4월 홍보대사 위촉 후 캠페인 '나는북극곰입니다' 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도 촉구했다. 류준열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골프를 즐긴다는 사실이 조명되자, 그린피스 후원 취소가 잇따랐다. 그린피스는 지난달 21일 "홍보대사는 개인의 선의를 바탕으로한 봉사활동" 이라면서도 "내규를 검토하겠다" 고 했다.

뉴진스, 미국 법원에 유튜버 신원 공개 요청

▲ 걸그룹 뉴진스. 사진=어도어

걸그룹 '뉴진스(NewJeans)' 가 미국 법원에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튜브 채널 계정 운영자의 신원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1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은 '@Middle7' 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튜브 채널 사용자가 자신들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 사용자의 신원을 공개해 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다. 뉴진스의 변호인은 해당 계정이 뉴진스를 겨냥한 욕설이나 조롱 행위에도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처음엔 해당 유튜버를 서울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유튜브 계정이 익명이라 고소 절차 성립이 힘들었다. 이에 따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유튜브 계정 정보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법원이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면 뉴진스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유튜브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게 된다.

뉴진스는 지난해 두 번째 EP '겟 업(Get Up)' 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K팝 걸그룹의 선두주자다.

낱말퍼즐 정답

1 침	소	봉	2 대		3 수	뇌	4 부
엽			행		시		창
5 수	6 포		7 진	8 입	로		부
	9 대	본		동		10 맞	수
11 허	기		12 실		13 갯	벌	
튼		14 적	토	15 마		16 이	17 유
수		령		음			년
18 작	대	기		19 보	통	내	기

베네딕트 파인 아트 Photography Gallery 포토그라피 갤러리
사진 클래스 회원 모집 중입니다.

베네딕트 양 작가 | 미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전문으로 촬영해오고 있으며 약 4,000여점의 풍경 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예술대학(AIB)에서 순수 예술 사진을 전공했으며, 다수 사진공모전 입상과 사진 강사, 공모전 심사 위원 등 풍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T.213.446.7476 | 3500 W. 6th St. #304, Los Angeles CA 90020